

지역 매 아리

김제시 보건소, 지평선축제장 연계  
치매극복 퍼레이드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달 28일, 29일 지평선 축제장에서 치매극복 퍼레이드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수 만 명의 시민이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지평선 축제에서 이색적인 퍼레이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치매에 대한 이해와 치매극복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다채롭고 전문적인 행사를 위하여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이색적인 분장을 한 학생들이 퍼레이드 행진을 하며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k-pop 음악에 맞춘 군무, 치매 극복을 주제로 한 상황극, 즉석 포토타임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치매안식개선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OX퀴즈를 통한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의 위험 인자인 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난 지평선 축제장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치매극복 퍼레이드 행사 및 홍보부스는 10월 3일, 5일, 6일에도 계속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에코백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우자원 우석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완주와일드푸드축제장에서 채소 과일 모양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1일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골고루 에코백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체험부스에는 어린이 450여명이 방문해 '건강한 식습관 지침'에 대해 알아보고 채소·과일 모양 도장을 이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교육했다.

우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11월에 개소해 현재 97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어린이 약 3,700여명에게 연령별 영양 식단 제공, 위생·영양 방과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미진사업 등 연말까지 마무리”

## 박성일 완주군수 “와일드푸드 축제 문제점 취합·보완해야”

박성일 완주군수는 1일 “올해 미진 사업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체크해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국가예산과 총선 공약 발굴, 내후년 신규사업 발굴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날 청원 율례조화와 확대 간담회에서 “올해도 이제 3개월가량 남은 만큼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군수는 또 “국가예산과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 분야 예산 등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비 확보가 가능한 만큼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제9회 와일드푸드 축제와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원활한 교통대책 등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그래도 각 실과와 읍면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취합하고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군수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에 앞으로는 한 치의 허점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17호 태풍 ‘타파’에 이어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완주군은 돼지열병 방역대책과 관련, 저점소독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함은 물론 양돈농가 1농가당 1공무원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3개소를 운영해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소독약품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공급하는 등 총력전을 경주하고 있다.

태풍 ‘미탁’의 북상과 관련해서도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일제적인 대비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2019. 9. 29(일) 15:00 ~ 18:00 특설무대  
전국 완주와일드푸드 요리경연대회에서 경기도 성남과 완주군의 참가팀이 공동대상을 수상했다.

##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전국 요리경연대회서 우승

### 완주 '황금연못' 팀, 경기 성남 '진저' 팀 공동 대상

전국 완주와일드푸드 요리경연대회에서 경기도 성남과 완주군의 참가팀이 공동대상을 거머쥐었다.

1일 완주군은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최대 인기 행사로 꼽히는 '전국 완주와일드푸드 요리경연대회'에서 성남의 '진저' 팀, 완주군의 '황금연못' 팀이 공동대상을 수상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세트 36팀 중 본선 진출팀 20팀이

경합을 벌였다.

진저 팀은 에피타이저로 소꿉친을 이용한 고추장 조림과 우렁과 호박잎쌈을 이용한 메인 요리, 디저트로 꽃감을 활용한 치즈케이크를 선보였다.

황금연못팀은 연근과 연잎을 활용한 코스요리로 백연죽, 연근잡채, 연잎보쌈, 연복주머니, 연근카나페, 반찬과 밥, 후식으로 이루어진 한상차림을 내놓으면서 관객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았다.

대회 후에는 폐막식과 함께 경연대회의 다양한 음식들과 완주

13개 읍면의 대표음식들이 어우러진 포트락파티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않는 와일드한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들 덕분에 많은 이목을 끌었다. 이날 준비한 300인분의 음식이 금세 사라질 정도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독창적이고 자연적인 요리들이 요리경연대회에서 선보여졌고, 훌륭한 음식을 준비해 준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대중화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흥겨운 축제 흥마당 '지평선축제'

김제시, 지평선 쌀강정 세계지도 만들기 및 문화유산 체험  
국내외 쌀 관련 가공식품 전시·홍보 등 국제 쌀 포럼 진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달 27일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한 이후 6일째를 맞이하는 2일까지 여전히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동안 개막식을 비롯해 지평선 전국 농악경연대회, 우리가족행복한 초가집 만들기, 지평선 농촌풍경 그리기대회, 전국·아시아 출타리기 대회 등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통해 한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인이 다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3일에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이슈메이킹 프로그램으로, 쌍룡광장에서 우리지역 쌀을 이용하여 김제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고 세계의 중심임을 의미하는 지평선 쌀강정 세계지도 만들기가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벽골제 맞은편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9월 30일부터 진행된 김제 지평선 국제 쌀 포럼을 오늘까지 선보인다.

이번 포럼 주제는 「쌀의 진화·미래와 세계를 잇다」로 선진국의 쌀 산업 동향, 쌀 관련 식품유통, 자물육종 및 김제시 쌀의 방향 등을 논하고 국내외 쌀 관련 가공식품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해 한 마음으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웃음 가득한 하루를 만끽하고 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많은 관광객이 가을날의 추억을 간직하러 찾아오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오감을 만족하는 110여가지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오는 6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제8회 김제 청소년 나라사랑 문화축제 개최

1일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열리고 있는 쌍용마을 특설무대에서 김제시와 전북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고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8회 김제청소년 나라사랑 문화축제가 열려 관광객들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김제지역 청소년들의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진취적이고 굳센 기상을 함께 격려하며 응원하는 문화축제로써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최승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덕암정보고등학교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막이 올랐고, 전북서부보훈지청 황선우 지청장, 김제시 박준배 시장, 온주원 의장, 김제시교육지원청 정대주 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덕암고등

학교 송민서, 최혜진양이 자랑스러운 청소년 김제시장상과 김제교육지청교육장상을 수상했고, 김제여자고등학교 박재원, 최선화양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상을 공동수상 했다.

기념공연에서는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팀 L.D.A의 '나의 땅이 뜨거운 환호 속에 무대를 채웠고, 덕암정보고등학교 김재정양, 김형기군의 '청소년 나라사랑 결의문' 낭독, 만경여자중·고등학교 차오름무용단의 전통부채춤, 김산초등학교 라온소리창단의 노래가 축하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청소년자유공연으로 각 학교 학생들의 자원에 힘입어 벌써 8년째 무대를 이어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보건소, 레드서클 캠페인성료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 9월 첫째 주 레드서클 집중 주간 운영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해 온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이 지평선축제장에서 레드서클 퍼레이드와 홍보부스 운영을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강한 혈관 관리를 위해 자기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건강수칙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병 조기발견 및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은 물론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정보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시청 종합민원실, 경찰서 등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통해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 등 건강수치를 알 수 있도록 체험장을 운영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실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